



네 차례잖아.

무슨 생각을
그리 골똘히 하고 있어?

아...

...!

그게...

이상하게도
실감이 안나.

여전히...



끔찍했던
그 날에...



머물러 있는
기분...

애는~



또
그 얘기니?

기억 안 나?



네가
모두 해결했잖아.





